출제의도와 문제해설

1. 통합형 논술로의 전환과 출제의 기본방향

과거 언어논술과 수리논술로 나누어 치르던 고려대학교 논술이 금년부터 통합논술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논술시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문제들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통합형 논술의 출제에서는 3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본고사형 풀이문제라는 의혹의 소지를 배제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둘째, 통합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하나의 공통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여 논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우수학생의 선발이라는 입시제도 본연의 목적에도 충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기초하여 이번 논술모의시험은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출제과정에서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결정하는 공통분모로서 i)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표현하는 능력, ii) 주어진 자료들의 논리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iii) 단편적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무게를 두었다.

2. 주제와 제시문의 분석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의도하는 통합논술의 모델을 수험생들에게 공개하여 기존의 논술유형과 달라진 점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와 제시문의 선택에 있어서도 낯설고 난해한 것들보다는 익숙하고 쉬운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하지만 제시문들이 담고 있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먼저 이번 모의시험에 출제된 제시문들의 공통주제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라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주제였다. 환경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들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통해 접하게 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있어서도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목에서 공부한 내용을 응용하여 종합적인 문제이해 및 해결능력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 다양한 교과목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제시문들도 논지가 뚜렷하여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로 구성하였다. 비록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직접 제시문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각 제시문들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모의시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제나 제시문들의 숫자와 길이가 아니라 제시문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를 기초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시문 (가)(자연계에는 이 제시문이 빠져 있음)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생태계의 자산과 서비스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경우에 이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가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일부 도입되

어 있는 오염물질배출총량제 등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나)(자연계의 제시문 (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논거**를 담고 있다. 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초기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점, 그리고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다)(자연계의 제시문 (나))는 기술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어떤 문제도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문제는 기술부족과 이를 부채질하는 비합리적 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라)(자연계의 제시문 (다))는 **중국의 경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황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에서는 사막지역의 확대 및 황사의 농도 증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마)(자연계의 제시문 (라))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상재해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바)(자연계에는 이 제시문이 빠져 있음)는 화학적 방제의 부작용과 생물학적 방제의 효율성을 예로 들면서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의 문제점**들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 제시문에서는 인간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논제 해설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종래의 언어논술, 수리논술이 나누어져 있었던 때와는 달리 제시문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제도 결합되어 있다. 다만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제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놓고 있다.

논제 Ⅰ에서는 “위 제시문들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다)의 요지를 밝히고(200자 이내), (다)의 관점에 (나)와 (바)의 견해에 대해 각각 반론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연계 논술에서는 (바)의 견해에 대한 반론과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하는 부분이 빠져 있음)

이 문제는 학생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능력 및 자기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공통주제를 분명히 밝혀주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주제를 찾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제시문들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특정 제시문에서 주장되는 관점을 기초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도록 한 것은 수험생들이 익숙한 주제라 할지라도 암기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과 분량 내에 제시문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해서 이를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논제 Ⅱ에서는 (라)에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황사농도를 추정하고, 사막화의 진행에 따른 피해규모를 예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황사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현실적 조건에 대해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중에는 기초적인 수열과 급수 그리고 지수·로그의 개념이 활용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미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추정 및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것이

다.

논제 Ⅲ에서는 사막화와 조림사업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황사농도의 변화에 대한 예측, 그리고 황사피해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자 할 경우에 조림사업의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비례식,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지수부등식에 관한 기초개념을 토대로 수리적 추론능력과 분석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중, 장기 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제 Ⅳ(인문계 논술에는 이 논제가 빠져 있음)에서는 황사먼지의 총량을 기준으로 한·중·일 삼국의 조림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배분할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미 다른 제시문들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현실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여러 교과목의 지식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큰 것이다. 이 문제는 황사문제 해결의 사회적·경제적 조건들과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문에 주어진 황사먼지의 이동속도와 거리의 비,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분의 기본개념을 활용하여 황사먼지의 양을 측정하여 부담금의 배분 기준을 정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논제 Ⅴ(인문계 논술의 논제 Ⅳ)는 “위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황사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 논술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제시문들의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사고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시문들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시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안들, 예컨대 제시문 (가)(자연계 논술에서는 빠져 있음)에서 주장되고 있는 생태계 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는 방안, 제시문 (다)(자연계 논술의 제시문 (나))의 입장에 따라 기술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제시문 (마)(자연계 논술의 제시문 (라))의 견해에 따른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이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밖에도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Ⅳ. 평가의 기준

논술시험은 수험생들의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열려 있는 문제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자칫 평가의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번 고려대학교 논술모의시험에서는 논제를 세분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물음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물론 논술시험의 성격상 정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논술문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일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고 해서 오답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견해를 펼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논거가 빈약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 논술문,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논술문, 제시문의 활용을 넘어서 제시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는 논술문 등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원고지 작성법의 오류, 맞춤법과 띄어쓰기, 분량 등의 형식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